

외국인 이주자의 거시적 이주 배경에 관한 인지

최병두* · 이정자**

요약: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세계적 차원의 지구-지방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른 출신 국가 및 지역과 목적 국가 및 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이들 간 관계 등의 거시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다문화공간의 개념과 이에 함의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이에 더하여 공간적 흐름과 공간적 차이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지하는 거시적 배경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그리고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4가지 이주 유형들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반면, 전문직 이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농어촌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도시 및 중도시 거주비율이 높지만,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의 출신 지역들(단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에서는 국제이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은 이주 전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대체로 낮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주요어: 외국인 이주자, 초국적 이주의 거시적 배경, 다문화공간, 출신 지역의 특성,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

1. 서론

지구-지방화 과정으로 국가 영역의 경계성이 약화되면서 상품과 자본, 정보 그리고 인구의 국제 이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 이주의 급증은 세계적 규모의 불균등발전의 심화, 이에 따른 국가나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특히 고용기회와 임금의 격차 확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초국적 이주의 증가는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

리적 이동성과 원격지 간 의사소통의 가능성 증대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교류의 확대로 인종적·문화적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출신 국가와 지역을 떠나는 이주자들이나 이들이 유입되는 국가나 지역의 원주민들도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와 담론들도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bdchoi@daegu.ac.kr

** 대구대학교 강사, 036116lkj@hanmail.net

사회공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인력 부족과 더불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었고,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및 학력 향상으로 3D업종 기피 현상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더욱 증가시켰다. 또한 농어촌이나 도시의 서민계층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면서 결혼이주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 해외직접투자 및 과학기술분야 교류 증대, 문화적 개방에 따른 외국어 강사의 필요성 등으로 고급인력의 수요가 커지면서 전문직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교류 증대와 더불어 국내 적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부족에 당면한 대학들이 국제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매진하면서 최근 유학생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와 관련된 거시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배경은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이나 지역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층위적·다규모적으로 구성되며, 또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개별 이주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배경을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이주자 개인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거시적(즉 지구적, 국가적) 차원과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미시적(즉 개인적, 가족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특히 전자의 거시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¹⁾ 본 연구에서 초국적 이주의 거시적 배경에 관한 접근은 추상적 이론 또는 개념들에 의존하기보다는 거시적 배경에 관한 초국적 이주자들의 인지 조사에 근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배경에 관한 연구동향과 이에 관한 개념적 접근

방법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주의 거시적 배경을 세계적 배경, 출신국의 국가적 배경, 출신지역의 배경, 그리고 이주 유입국으로서 한국의 배경에 관한 이주자들의 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시적 배경에 관한 인지 자료는 2008년 10월에서 2009년 2월 사이 국내 6개 지역(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서 시행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시적 이주 배경 자체에 관한 고찰과 이에 근거한 초국적 이주에 관한 거시적 이론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국내 이주 및 정착과정과 관련된 정책 자료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동향과 개념적 고찰

국제 이주는 인간이 특정 지역에 정착생활을 하게 된 이후, 다양한 이유들로 지역을 옮겨 살게 된다는 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국가를 옮겨 살게되는 국제 이주에서 그 배경과 주체는 이주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이주의 형태 또한 미지의 영토 개척, 유목, 식민지 점령, 무역상인, 노예, 계약노동, 난민 등 다양한 배경이나 동기에 따라 개인, 가족, 집단 단위로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에 따른 구조적 인구 이동은 그 시기에 따라 이동의 주체와 객체가 다양해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조현미, 2009, 521). 최근에 와서는 국제 이주의 유형도 다양해져서, 높은 임금과 생활여건을 찾아서 해외로 이주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를 비롯해 국가 간의 교류증대 및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발맞추어 미래를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기업의 세계화 과정 및 문화의 세계적 개방으로 전문직 이주자의 국제이동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이주 및 그 정착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제시되었다. 예로, 매시 등(Massey, *et al.*, 1993)은 국제이주의 기원과 지속을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들로 개인, 가족, 국가, 세계수준의 분석 수준에 따라 신고전경제학,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그리고 세계체제론으로 분리하여 이주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이주이론을 재정리하여 이주의 발생과 영속화, 그리고 이주자의 적응까지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들은 이주의 발생과 관련하여 신고전경제학의 거시이론과 미시이론,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및 역사-구조적 접근(세계체제론)이론 등을 소개하고, 이주의 영속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론(사회적 연결망, 제도이론)과 누적원인론 등을 제시한다(전형권, 2008, 265).

이러한 이론이나 방법론을 대별해 보면, 우선 행위 중심이론과 구조중심이론으로 구분된다(그림 1) (석현호, 2000; 전형권, 2008; 박배균, 2009). 행위중심이론은 개인과 가족을 분석단위로 하고, 국제 이주와 정착을 개별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

며, 특히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지역 간 차이에 초점을 두고 국제 이주를 설명한다. 행위적 측면에서, 이주자들은 교육, 경험, 훈련, 언어능력과 같은 자신의 인적자본을 투자하여 고용이 가능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구조중심이론은 중심부의 자본 투자에 의해 유발된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으로 국제 노동력의 이동이 촉진되고, 따라서 초국적 이주는 거시적 배경으로서 세계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 따른 결과로 설명된다. 구조적 측면에서, 노동력의 국제 이동은 해당 국가의 상대적 과잉인구를 유발하여 저임금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원천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유입국의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에서의 자본집약적 부문과 노동집약적 부문의 분절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는 주로 후자의 노동시장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구조중심이론들은 국제이주의 배경이나 의사결정과정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로 다른 차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 이주를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개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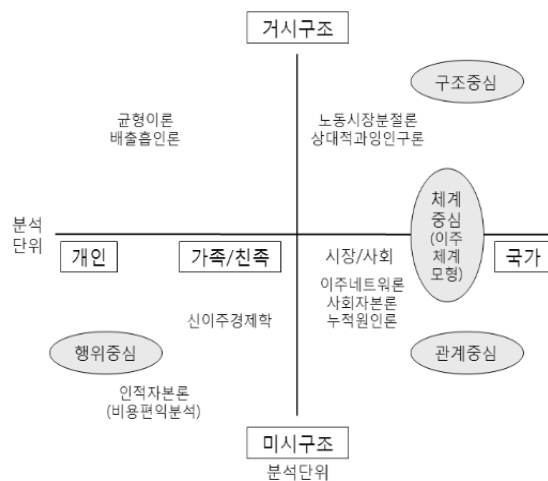


그림 1. 국제이주의 분석수준과 분석단위

자료: 전형권, 2008,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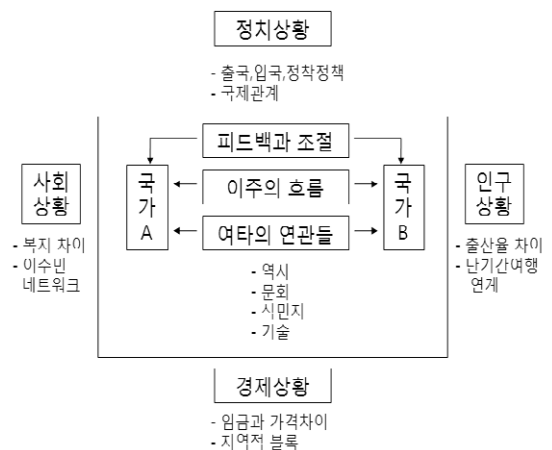


그림 2. 이주체계접근법의 분석틀

자료: Kritz & Zlotnik(1992), 김용찬(2006)재인용

은 관계중심이론으로 지칭되며, 사회자본론, 사회네트워크이론 등을 포함한다. 이 이론들은 국제 이주를 이주자 개인의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계, 즉 사회적 연결망이나 이와 관련된 이주 조직(또는 이주 에이전시)으로서 사회집단, 조직, 단체 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구조와 행위를 결합시키고, 이주의 흐름과 후속되는 이주의 사회적 조건들과 이주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과 유사하게, 거시구조적 접근과 미시구조적 접근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체계중심이론은 이주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다차원적(또는 다규모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즉 체계중심이론은 국가들 간 체계화된 이주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두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인구학적 환경을 배경요인으로 하여 노동력을 송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의 이주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진다(그림 2).

최근 이러한 국제이주의 배경과 정착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 탈식민주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초국가주의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출신국과 정주국 간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계망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이주의 연쇄 및 정착 과정에서의 생활양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로, 최재현(2007, 2)은 초국가주의적 접근에 기초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간적 메커니즘과 특성을 파악하면서, “국제결혼 이주를 통해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에 공간적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이용균(2007)은 초국가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초국적 민족문화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접근은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가족 및 친구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초국적 특성을 반영한 이들의 네트워크는 이들의 국제 이주 및 정착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접근은 국제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서 초국가적으로 형

성되어 있는 이주자들의 연계망과 그들의 초국가적 실천과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은 국제 이주가 완전히 구조적 차원에 의해 규정되거나 또는 반대로 개별 이주자의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주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에이전시(agency)를 강조함으로써 구조/행위 차원을 결합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예로, 이러한 점에서 최재현(2007)은 국제결혼이주가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같은 에이전시에 의해 집단적,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현주(2009, 110)는 이러한 “에이전시의 재조명은 구조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제약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개인의 ‘차별화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초국가주의는 국제 이주와 정착과정이 장소-기반적 사회문화적 관계에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박경환, 2009).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문화주의나 초국가주의에 기초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관계에 초점을 두으로써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 내재된 공간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국제이주와 정착에 관한 사회문화적 이론들에 공간 개념을 접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사실 다문화주의나 초국가주의는 공간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제3의 공간’, ‘사이 공간’ 등의 공간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측면을 강조하여 명시화하기 위해 ‘다문화사회’ 대신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이라는 용어가 제시될 수 있다(최병두, 2009b). 즉 오늘날 문화적 교류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개별 국지적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교류와 혼합은 지구-지방적으로 새로운 다문화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문화 공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현상들을 공간적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그동안 간과된 주제들을 새롭게 드러내고 또한 기존의 논의들도 재서술함으로써 보다 적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다문화주의나 초국가주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 관계를 분석하는 분석틀은 세계화 속에서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초국가 이민 집단이 어떻게 다른 의미성, 행위, 경제, 정치적 특성 등을 가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최재현, 2007, 4). 이러한 점에서 박배균(2009)은 Jessop 등(Jessop *et al.*, 2008)이 제시한 사회공간적 관계의 이론화에 근거하여,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 과정 분석에 보다 명시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공간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장소, 영역, 스케일, 네트워크의 사회공간적 차원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공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더 진전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박배균, 2009, 616).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의 거시적

배경, 나아가 이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미시적 배경과의 접합을 전제로 한 거시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체계중심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모형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같은 공간적 차원이 부각되도록 한다. 여기서 출신지 상황 및 이주 후 정착 지역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장소의 의미로 이해된다. 즉 장소는 이주관련 정보 흐름과 연계망의 장소기반적 성격과 관련되며, 출신지에서 형성되는 가족, 친지들과의 사회적 연계망이나 이른바 ‘사회적 자본’, 그리고 정착지에서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과 이를 통한 종족 집단별 지역 차별화, 즉 ‘종족 집거지’(ethnic enclave)의 출현, 그 외 이주자들의 이주와 정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적 조건의 특성을 포함한다.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영역성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특히 출신국과 유입국의 경제, 정치적 규제(예로 취업조건 등과 관련된 이민정책)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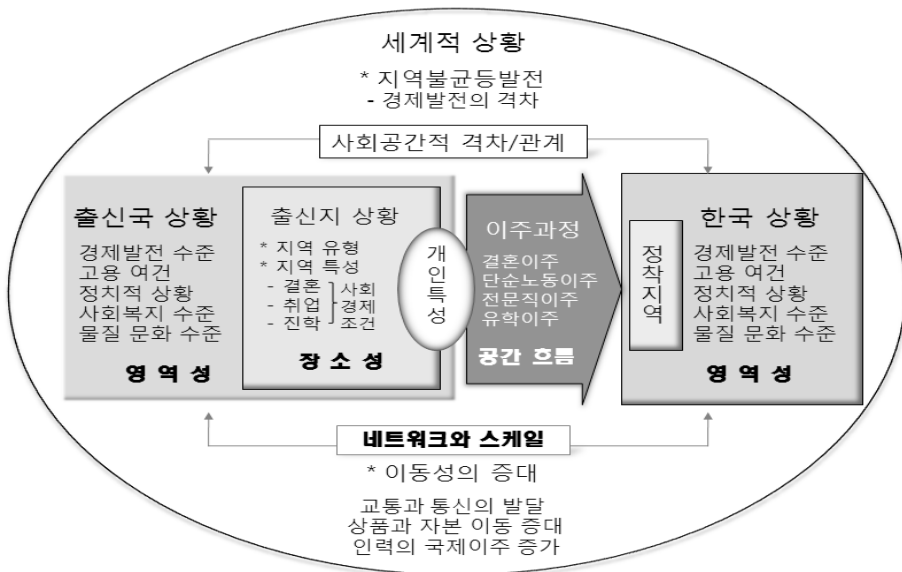


그림 3.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

정책이나 권리 부여와 관련된다. 물론 이러한 영역은 개별 이주자의 출신지 및 정착지의 장소와도 관련된다. 출신지 및 정착지에서 취업이나 결혼, 진학을 위한 기회나 조건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편견과 배제가 부각될 경우, 장소의 영역화가 이루어진다. 네트워크는 출신국(지)과 정착국(지) 간에 형성된 사회적 연계와 이를 통한 연쇄이주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지화된 이주자들 간 사회공간적 연계와 이를 통한 장소적 뿌리내림에서도 확인된다. 스케일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 영향을 주는 지구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의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힘과 과정들과 관련된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가간 이주 및 특정 지역에서의 정착과정은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요청한다.

이러한 4가지 핵심적 차원들과 더불어 2가지 공간적 요소들이 추가될 수 있다. 첫째, 국가간 및 지역간 ‘공간적 흐름’이 강조될 수 있다. 국제 이주 자체는 두 국가간, 두 지역간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동은 이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사회공간적 요소들로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이동 그 자체에 전제된 거리의 마찰이나 관련 지식들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지리적 이동성은 두 국가(지역)간 이주 과정뿐만 아니라 일정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도 일상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이동성이란 물리적 공간 극복 능력인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에 대한 인지능력과 상상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과 집단의 일상생활이 조직되는 기초가 되며, 사회적 권력관계 지형도를 드러내는 단초가 된다”(정현주, 2007, 53).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는 정착 지역에서 성별, 비자 유형 및 직종의 전문성, 국적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직주거리에 차이를 나타낸다(류주현, 2009).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다양한 특성들은 출신국(지)과 정착국(지) 간 거리를 좌우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른 한 요소는 공간적 차이(또는 격차)이다. 국제 이주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및 지역간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

순히 가시화된 요소들(예로, 생산성, 산업구조, 고용 기회, 결혼이나 학업 조건 등)의 양적 격차에서 나아가 이러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관련된다. 즉 국제이주는 지구적 차원에서 불균등발전 메커니즘에 기초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관련된다. 특히 최근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과정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그리고 이에 내포된 개별 국가나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 이러한 지리적 불균등발전 메커니즘을 강화시키고, 지리적 차이들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개별 국가나 지역 내에서도 확인된다.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강조되는 차이는 사회문화적 차이이며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생태적 차이’도 강조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항상 공간적 측면과 결합된다. 하비(Harvey, 1996, 6)는 이러한 “공간적 및 생태적 차이들은 …… ‘사회-생태적 및 정치-경제적 과정들에 의해 구성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차이는 외국인 이주 및 정착 과정을 구성하며 또한 이들에 의해 구성(완화 또는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3. 국제 이주의 세계적 배경

외국인 이주자들은 초국적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정치적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주자 개인들은 이러한 거시적 구조의 조건들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심지어 이를 부정하면서 이주는 자신들의 자발적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거시적 배경에 의한 규정보다는 자신의 자발성이나 직접 관련된 개인적, 가족적 조건들을 더 의식한다는 점은 다른 조사연구에서도 확인된 점이긴 하지만(예로, 박은경, 2009),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제 이주와 정착은 이러한 행동을 조건지우는 영토적 규정력에 대응하는 개인의 의사와 실천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다(조현미, 2009, 522).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국가간 경제 발전수준의 차이, 세계적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국가 간 상품과 자본의 이동의 증가 정도, 그리고 최근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지표로 하여 세계적 배경에 대한 이주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전체 응답자 1,353명 가운데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6.7%와 40.0%로, 응답자의 3분의 2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5점 척도 값도 3.9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내었다(그림 4).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전문직이주자들이 차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아서 5점 척도 값으로 4.21을 나타내었고, 반면 결혼이주자가 가장 낮아서 3.62를,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비슷하게 3.75와 3.76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보면, 우선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이 국가 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는 응답비율을 높게 나타내었다. 이 점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최근 심화된 지구적 불균등발전이 자신의 출신국과 정착국인 한국 간 경제적 발전의 수준차이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배출/흡인요인의 작용으로 국

제이주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사례 1] 본국은 경제수준이 낮고,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으며, 일자리가 없고, 앞으로의 전망도 특별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 가면 일자리가 많고 임금도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국 사람들은 해외 취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 (이주노동자, 태국 출신, 여성, 1974년생, 대졸, 기혼, 2006년 입국, E-9(비전문취업) 비자).

이러한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민감할 것으로 추정되지만(김영란, 2008, 104-1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직 이주자들의 긍정적 인식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으로 세계적 배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또한 이에 따른 임금격차의 심화 등 국제이주의 거시적 조건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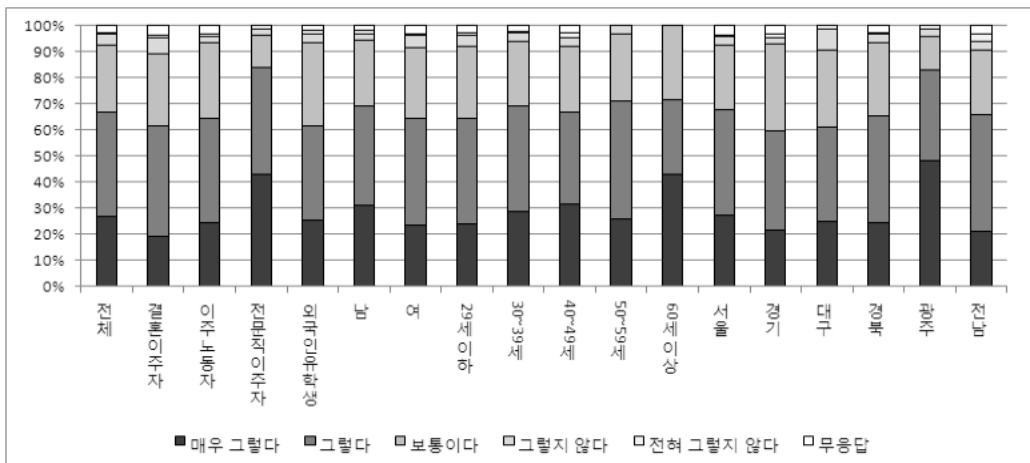


그림 4. 국가 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에 관한 인식

응답자의 다른 특성인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점 척도 값으로 3.97로 여성 3.84보다 약간 높았으나, 남녀 모두 국가 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응답자가 5점 척도 값으로 4.14로 가장 높았고, 29세 이하가 3.84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다른 연령대의 5점 척도값은 모두 3.9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약간 더 크게 느낀다고 할 수 있지만, 30-59세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광주의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 5점 척도 값으로 가장 높은 4.25를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국적을 고려하여,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 대한 각 유형별 상위 5개국 출신자들의 인식을 5점 척도 값으로 계산하면 <표 1>과 같다. 결혼 이주자의 경우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은 4.18과 3.94로 높은 점수를, 필리핀과 중국 출신은 3.48과 3.64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베트남 출신은 4.24로 높은 점수를, 스리랑카와 필리핀 출신은 3.62, 3.69로 낮은 점수를 보였고, 중국 출신은 3.88로 평균 수준을 나타내었다. 전문직이주자

및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에도 중국 출신이 4.00 및 3.59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문직이주자들 가운데 선진국인 미국 출신과 영국 출신이 4.33과 4.64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일본 출신이 4.39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특이하게 미국 출신 유학생은 3.89로 낮은 점수를, 필리핀 출신은 4.25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이주자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국 출신 이주자들은 전반적으로 국가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필리핀 출신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만, 동아시아의 다른 개도국 출신 이주자들은 대체로 격차를 다소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국의 경제 수준을 한국과 비교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출신자들도 대체로 격차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전반적 차원에서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이주를 촉진하는 또 다른 주요한 거시적 요인으로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아무리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상호보완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두 지역 간 물자, 정보, 사람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수송가능성, 즉, 교통·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았다면 초국가적 이주는 불가능했을 것이

표 1. 국가 간 경제 수준 차이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인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전체	388	3.77#	전체	345	3.88#	전체	256	4.26#	전체	358	3.82#
중국	143	3.63	중국	119	3.88	미국	65	4.33	중국	209	3.59
베트남	130	3.94	필리핀	63	3.69	캐나다	37	4.22	일본	31	4.39
필리핀	56	3.48	인도네시아	35	3.82	중국	23	4.00	인도	23	4.41
일본	16	3.81	베트남	63	4.24	일본	22	4.10	필리핀	16	4.25
캄보디아	18	4.18	스리랑카	22	3.62	영국	22	4.64	미국	9	3.89
기타	25	4.04	기타	43	3.79	기타	87	4.23	기타	70	3.94

주: * 전혀그렇지않다 = 1점, 그렇지않다 = 2점, 보통이다 = 3점, 그렇다 = 4점, 매우그렇다 = 5점.
국적을 표기하지 않은 무응답자들을 제외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각 유형별 전체 응답자의 5점 척도 값과는 약간 차이를 보임.

다.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은 물리적 거리의 마찰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에 원격지 간 정보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이른바 시공간적 압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세계적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실제 이주과정에서 국가 간 물리적 공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입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고국을 방문하거나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의 연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이주를 전반적으로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초국가적 이주를 가능하게 한 교통·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 28.8%, ‘그렇다’ 44.1%로 응답하였으며, 5점 척도 값으로 4.01을 나타내어,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차이’에 대한 5점 척도 값(3.90)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주자 유형별로 보면, 경제수준의 차이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자의 5점 척도 값이 3.70으로 가장 낮았고, 전문직이주자가 4.26으로 가장 높았다. 이주노동자는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직 이주자와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교통 및 정

보통신기술이 발전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학력이 비교적 높은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관한 인지를 응답자의 다른 특성별로 고려해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점 척도 값 4.05를 나타내어 여성 3.98보다 약간 높았지만, 대체로 성별에 차이 없이 높은 긍정적 응답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14로 가장 높았고, 50-59세 사이 응답자가 3.87로 가장 낮았지만, 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96% 이상을 차지하는 49세 이하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비슷한 수치(즉 3.96에서 4.05 사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가장 높은 4.22, 전남이 가장 낮은 3.80을 보였지만,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다.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에 관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인지를 국적별로 살펴보면(표 2), 결혼이주자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 출신 이주자들이 대체로 높은 5점 척도 값을 나타내었고,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은 상대적으로 낮은 3.59와 3.76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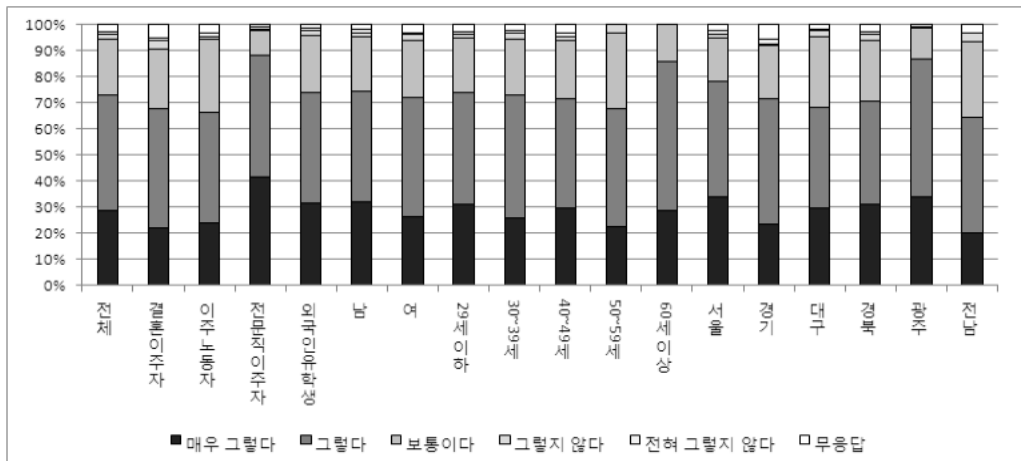


그림 5.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관한 인지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베트남과 중국 출신 이주자들이 각각 4.11와 3.94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반면 스리랑카 출신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문직 이주자들은 대체로 높은 4.2를 기록했으며, 특히 영국 출신 이주자는 4.64를 나타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중국 출신은 오히려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인도, 필리핀 출신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종합해 보면, 대체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동아시아의 비선진국 출신 이주자들은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반면, 전문직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영국 출신과 인도 및 필리핀 출신 이주자들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이주는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발달은 국가 간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에 기초한 서구 경제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생산공정을 제3세계 국가들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해외직접 투자는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한 것이었지만, 또한 저렴한 원자재의 확보와 더불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초래된 국내 생산의 공동화 현상과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이 어려운 산업들(예로, 건설업 등)은 국내로 저렴한 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

게 되었다(최병두, 2009a). 이러한 점에서 보면,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국제 이주의 증대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다소 상반된 경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간 상품과 자본의 이동 증가와 관련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들 가운데 26.0%는 ‘매우 그렇다’를, 42.7%는 ‘그렇다’고 응답하여 5점 척도 값으로 3.93을 나타내었다. 이를 이주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는 3.52로 가장 낮은 값을, 전문직 이주자가 4.1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직 이주자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상품 및 자본의 이동 증가에 대한 이주자 유형별 인지 차이는 앞선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관한 점수 차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및 자본의 지구적 이동 증가에 관한 인지를 응답자들의 다른 특성들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점 척도 값 4.03을 나타내어 여성의 5점 척도 값 3.88보다 다소 높았다. 5점 척도 값에 의해 유형별·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은 여성이 높은 반면 전문직 이주자는 남성이 4.30으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대체로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 등급 간에 5점 척도 값으로 3.86에서 4.00 사이를 나타내어 큰 차이가 없

표 2.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인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전체	388	3.91	전체	345	3.90	전체	256	4.29	전체	358	4.03
중국	143	3.96	중국	119	3.94	미국	65	4.23	중국	209	3.91
베트남	130	4.00	필리핀	63	3.95	캐나다	37	4.27	일본	31	4.32
필리핀	56	3.76	인도네시아	35	3.85	중국	23	4.22	인도	23	4.45
일본	16	3.88	베트남	63	4.11	일본	22	4.23	필리핀	16	4.44
캄보디아	18	3.59	스리랑카	22	3.71	영국	22	4.64	미국	9	4.22
기타	25	3.76	기타	43	3.50	기타	87	4.26	기타	70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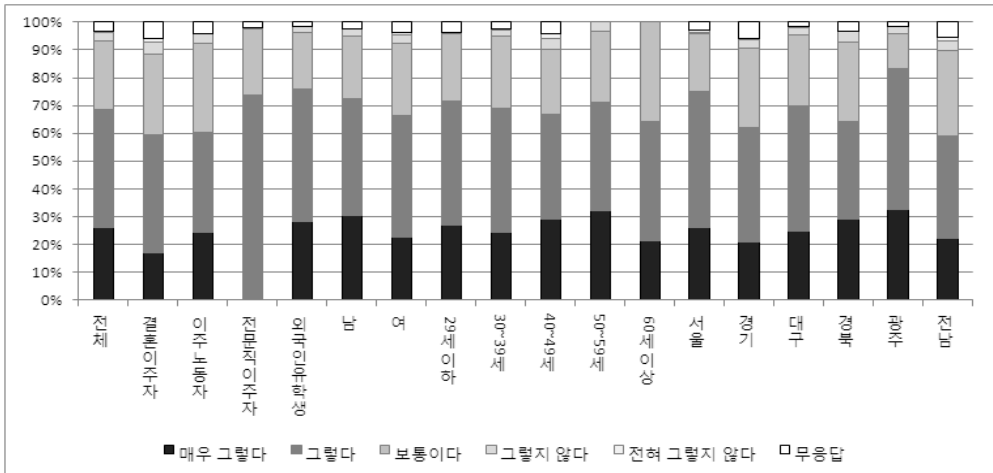


그림 6.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증가에 관한 인지

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4.1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80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교통 및 통신기술에서 나타난 차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의 경우 베트남과 중국 출신 이주자가 각각 3.86 및 3.8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필리핀 출신은 3.44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이하게 종교적 이유로는 결혼 이주한 사례가 많은 일본 이주자들도 3.50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 출신 이주자들이 각각 4.02 및 4.03으로 높았고,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출신이 각각 3.33과 3.56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문직이주자들 가운데 영국 출신이 가장 높은 4.38을 보였고, 중국 출신 이주자가 가장 낮은 4.17을 나타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본 출신이주자가 4.35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 출신도 4.31로 높았다. 반면 특이하게 미국 출신은 3.78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출신국가별 인지 특성은 대체로 다른 지표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국가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이주 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해당 유형 내에서 다른 국가 출신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순위

가 차이를 알 수 있다. 예로 중국 출신 이주자들은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해당 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의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상품 및 자본의 지구적 이동 증대와 더불어 국제 이주가 급증하고 있음을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러한 국제 이주 추세를 자신과 직접 관련시키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특정 현상이 자신들과 관련된 경우 흔히 확대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다른 현상들, 예로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차이나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상품 및 자본의 이동 등 외적 조건들에 대해 오히려 더 민감하게 인지하면서, 자신과 직접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한 특수한 (즉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 실제 국제 이주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후자의 입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에 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은 5점 척도 값으로 3.74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국가간 경제수준 차이(3.90), 교통통신수단의 발달(4.01), 상품·자본의 지구적 이동(3.93)에 비해 상

표 3. 상품 및 자본의 지구적 이동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인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전체	388	3.75	전체	345	3.85	전체	256	4.23	전체	358	4.03
중국	143	3.81	중국	119	4.02	미국	65	4.25	중국	209	3.97
베트남	130	3.86	필리핀	63	3.73	캐나다	37	4.22	일본	31	4.35
필리핀	56	3.44	인도네시아	35	3.56	중국	23	4.17	인도	23	4.27
일본	16	3.50	베트남	63	4.03	일본	22	4.18	필리핀	16	4.31
캄보디아	18	3.75	스리랑카	22	3.38	영국	22	4.38	미국	9	3.78
기타	25	3.64	기타	43	3.71	기타	87	4.16	기타	70	3.97

당히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에 관한 인지 정도를 이주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가 3.45로 가장 낮았고, 전문직 이주자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주노동자는 3.61, 외국인유학생은 3.70을 보였다. 이러한 유형별 특성은 다른 항목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지도는 학력이나 지식의 수준에 의해 상당히 좌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점 척도 값으로 3.90, 여성이 3.78을 나타내었고, 연령별로는 40-49세 사이 응답자가 가장 낮은 3.67을 보였으나 대체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대체로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

보면, 서울 3.73, 대구 3.37, 광주 4.03 등 대도시와 경기 지역 3.80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반면 경북, 전남 지역에서는 각각 3.58, 3.64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광역도시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에 비해 주변에 외국인 이주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의 경우 베트남 출신이 3.86으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다음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순을 보이며, 일본은 3.3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일본의 경우 이주의 거시적 배경이 타 국가 출신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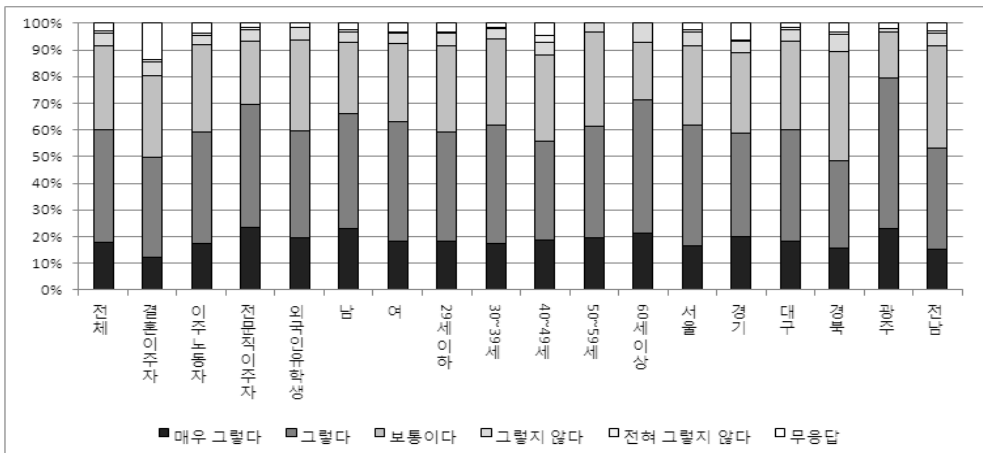


그림 7. 최근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에 관한 인지

표 4. 최근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인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국적	응답자	5점 척도
전체	388	3.63	전체	345	3.75	전체	256	3.88	전체	358	3.75
중국	143	3.45	중국	119	3.68	미국	65	3.52	중국	209	3.58
베트남	130	3.86	필리핀	63	3.88	캐나다	37	4.03	일본	31	4.16
필리핀	56	3.63	인도네시아	35	3.48	중국	23	4.09	인도	23	4.00
일본	16	3.31	베트남	63	3.97	일본	22	3.82	필리핀	16	4.13
캄보디아	18	3.69	스리랑카	22	3.81	영국	22	4.14	미국	9	3.67
기타	25	3.68	기타	43	3.62	기타	87	4.07	기타	70	3.93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주노동자 경우는 5점 척도 결과 베트남 출신이 3.97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인도네시아 출신이 3.48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보아 인도네시아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아직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인도, 영국, 중국, 캐나다, 호주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며, 미국이 3.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인도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전문직 이주자의 국제이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적별 살펴보면 일본이 4.16으로 가장 높고, 다음 필리핀 4.13, 인도 4.00, 미국 3.67이며, 중국이 3.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은 모든 유형에서 국제 이주의 거시적 배경으로서 세계적 상황들에 대해 대체로 높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해 가장 높은 5점 척도 값을 나타내었고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서 전문직 이주자가 가장 높았고 결혼이주자가 가장 낮았으며,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직 이주자와 유사하고 이주노동자는 결혼이주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인식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국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출신국의 국가적, 지역적 배경

1) 본국의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인지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제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직접적으로 출신국의 국가적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국가와 지역을 떠나 새로운 국가,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출신 국가 및 지역의 여러 요인들이 가지는 영토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거나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출신국의 국가적 상황과 관련한 본국의 경제적 수준, 좋은 직장, 정치적 상황, 사회복지수준, 물질문화 발달 정도 등에 대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인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표 5).

우선 본국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항목에서 결혼이주자들 가운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40.0%, 이주노동자는 50.0%를 나타낸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28.1%, 18.8%를 나타냈다.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0%, 19.8%, 그리고 부정적 응답 비율이 60.9%, 48.6%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5점 척도 값으로, 이주노동자가 3.39로 가장 높고, 결혼이주자 3.05, 외국

표 5. 본국의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인지 (5점 척도 값)

	응답자수(명)	경제적 수준이 낮음.	좋은 직장이 부족함.	정치 상황이 불안정함.	사회복지 수준이 낮음.	물질문화가 뒤떨어짐.
전체	1,353	2.93	3.02	2.66	2.93	2.50
결혼이주자	393	3.05	3.02	2.63	3.04	2.57
이주노동자	346	3.39	3.39	3.11	3.32	3.05
전문직이주자	256	2.42	2.69	2.32	2.38	2.07
외국인유학생	358	2.51	2.61	2.28	2.52	2.03

주: 설문조사에서 무응답은 5점 척도 값 산정에서 제외함.

인 유학생 2.51, 전문직 이주자 2.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유형별로 이주의 동기나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송출국인 본국이 대부분 저개발국가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본국의 사항, 즉, 국가 간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국제이주의 배출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다른 동기들이 이주에 영향을 미쳤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좋은 직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항목에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긍정적 응답에서 각각 42.0%와 50.9%를 나타내었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에서는 각각 27.2%, 10.9%를 나타내었다.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긍정적 응답에서 각각 25.1%, 21.6%를, 부정적 응답에서 각각 48.8%, 46.1%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5점 척도 값으로 이주노동자가 가장 높은 3.39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결혼이주자 3.02, 전문직 이주자 2.69, 외국인 유학생 2.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 목적이 자체가 직장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이주 자체가 직장관 관련을 가지긴 하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이주 요인이 본국의 직장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예로 자신의 경력을 높이기)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본국에서 좋은 직장 자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5점 척도 값으로 이주노동자가 3.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이주자 2.63, 전문직 이주자 2.2, 외국인 유학생 2.28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인지 정도를 경제적 수준이나 좋은 직장 기회와 비교해 보면,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긍정적 응답을 높게 나타내었는데, 이는 실제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필리핀 등 본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이주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결혼이주자의 점수는 많이 낮아졌고,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정’은 (일부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하고) 국제 이주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국의 ‘사회복지(교육, 의료보건 등)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각각 39.1%, 48.0%였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21.6%, 14.9%였다.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19.6%, 18.7%이고,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61.3%, 45.2%였다. 이에 따라 5점 척도 값은 이주노동자 3.32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이주자 3.04, 외국인 유학생 2.52, 전문직 이주자 2.38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수준에 관한 이러한 응답결과는 경제 수준 및 좋은 직장 여부에 대한 유형별 인지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끝으로 '물질문화(TV, 컴퓨터 보급 등)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각각 26.2%, 41.6%였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43.2%, 26.0%였다. 그리고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14.0%, 11.2%이고,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76.6%, 68.4%였다. 이에 따라 5점 척도 값은 이주노동자 3.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이주자 2.57, 전문직 이주자 2.07, 외국인 유학생 2.03 순으로 나타났다. 물질문화의 수준에 관한 이러한 응답 결과는 다른 모든 문항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5점 척도 값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이주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별 특성으로 보면, 물질문화에 대한 응답은 이주노동자만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유형의 이주자들에서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제 및 고용, 사회복지보다는 오히려 정치 상황에 대한 인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본국의 상황에 대한 이주자들의 인식을 종합하면,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주노동자는 본국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좋은 직장이 부족하며, 정치적 상황이 다소간 불안정하고, 사회복지수준이 낮으며, 물질문화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경제적 수준 및 좋은 직장의 부족, 그리고 사회복지 수준이 낮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나 물질문화의 낙후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모든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본국 상황이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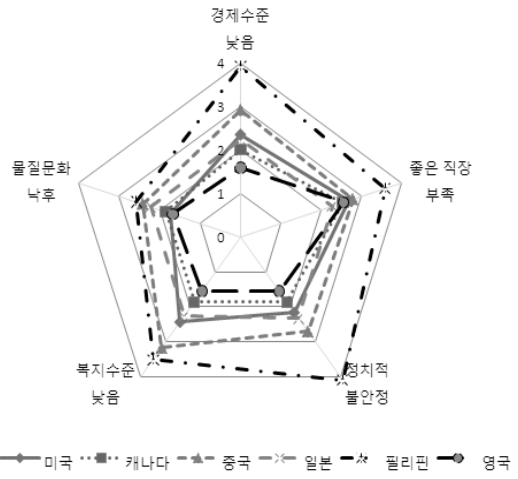


그림 8. 전문직 이주자의 국적별 본국 상황

자 유형에 따라 이주결정 동기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에서도 물론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각 유형 내에서도 다소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로 전문직 이주자들 가운데도 국적별로 살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8). 즉 전문직 이주자라고 할지라도 저개발국에서 유입된 이주자들은 본국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반면, 영국과 캐나다의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본국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좋은 직장에 대한 기회는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예술홍형(E-6)의 비자 유형이 많은 필리핀의 경우는 설문에 응한 국가 중에서 본국의 상황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리핀 다음으로는 러시아와 인도가 본국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다. 러시아는 최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음을 반영하듯 좋은 직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전문직 이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역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대체로 서울과 대학기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복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이 본국의 상황을 비교적 좋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국의 지역적 상황에 대한 인지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 지역 유형과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특성들은 이들의 이주 의사결정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주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공간적 스케일이 작아질수록 보다 세밀하고 또한 직접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전 거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공통문항으로 설정하였으나, 그외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 그리고 지역에서 해당 유형의 국제 이주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등에 관한 설문 문항들은 각 유형별로 달리 설정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이주 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도시(인구 100만 명 이상)에 거주했던 응답자가 26.6%, 중도시(5만~100만명)에 거주했던 응답자가 33.4%, 소도시(2만~5만명)에 거주했던 응답자가 16.7%, 농어촌(2만명 이하)에 거주했던 응답자가 21%로 조사되었다(그림 9). 유형별로 보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살았고,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각각 42.6%와 33.8%가 대도시, 41.0%와 43%가 중도시에 살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삶의 여건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러한 응답결과는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결혼 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 전 삶의 여건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국 거주지에서의 열악한 삶의 여건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를 결심하게 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이주 전 거주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표 6)²⁾, 우선 이주노동자의 경우 해외취업과 관련된 출신 지역의 상황으로 '직장 구하기 어려움', '낮은 임금', '고된 노동', '불확실한 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응답은 출신 지역의 이러한 구체적 상황들에 대해, 미래의 '불확실한 전망'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대체로 '그렇다'는 비율을 높게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5점 척도 값은 3.5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 1)의 경우와 다소 상반되지만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 (사례 2)와 비교해 보면 이해될 수 있다.

[사례 2] 길림시는 교통조건이 좋아 앞으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망이 좋다. 하지만 현재 고용조건이 나빠서 젊은 사람들의 해외취업, 특히 한국 취업이 많다. 길림시에 사는 사람의 경우, 농사일로 버는 수익이 낮아 겸업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재중동포 출신 남성, 1999년 입국, D-3(산업연수생) 비자로 입국, 대구 인근 거주).

이 사례의 경우, 출신 지역은 앞으로 전망은 좋다고 하지만, 현재 수익이 낮은 농업 외에 마땅히 전업으로 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하여 해외로 취업 이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중국 출신 이주자들은 출신 지역, 나아가 출신 국가의 전망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도 취업 이주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와 비슷한 문항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부족',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높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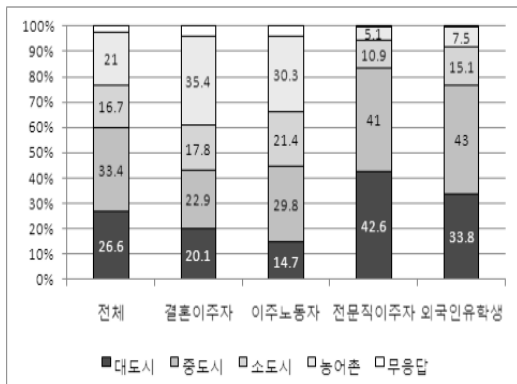


그림 9. 이주 전 거주 지역

표 6. 이주 전 거주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한 이주 유형별 인지

이주노동자	5점척도	전문직 이주자	5점척도	외국인 유학생	5점척도
직장 구하기 어려움	3.56	직장 구하기 어려움	2.63	전공학과 부족	2.19
낮은 임금	3.59	낮은 임금	2.64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움	2.74
고된 노동	3.51	국제 경험 기회 부족	2.62	외국에 대한 교육 부족	2.76
불확실한 전망	3.43	국내외 취업 구분 없음	2.64	성적에 맞는 대학 부족	2.45

다’라는 문항과 더불어 ‘국제적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다’, ‘본국 취업과 해외 취업 간 별로 구분이 없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문직 이주자들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거의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에 따라 5점 척도 값은 모두 2.6이었다. 전문직 이주자들의 이러한 응답결과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선진국 출신이고 학력이 높다고 할지라도, 출신 지역에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이 충족된다면 구태여 한국으로 취업 이주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또 다른 이유(예로 특정한 문화적 이유)로 이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출신 지역의 여건에 대해 다소 모호한 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의 사례3을 참조할 수 있다.

[사례 3] [출신] 지역 주민들의 해외 취업에 관한 생각은 잘 모르겠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도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행과 함께 영어를 가르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다. 일본은 [물가가] 비싸고 돈을 벌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태국으로 갈까 생각도 많이 했었다 (전문직 이주자, 미국 출신 여성, 2008년 입국, 회화지도(E-2) 비자, 대구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출신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전공학과 부족, 지방대학 부족,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움, 외국에 대한 교

육 부족, 본인 성적에 맞는 대학 부족 등에 관한 설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점 척도 분석결과 외국에 대한 교육 부족이 2.7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송출국의 배출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출신 지역의 상황 역시 국적별로 상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로 심층면접에서 일본 출신 여성의 경우 출신지역에서 “취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대학원까지 가는 학생도 늘고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 출신 여성의 경우도 다소 다른 의미에서 출신지역인 “광둥성에서는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을 가는 편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고, 광둥성에는 20개 정도의 4년제 대학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으로의 유학은 본국에서 진학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이주 전 거주 지역에서 국제이주에 관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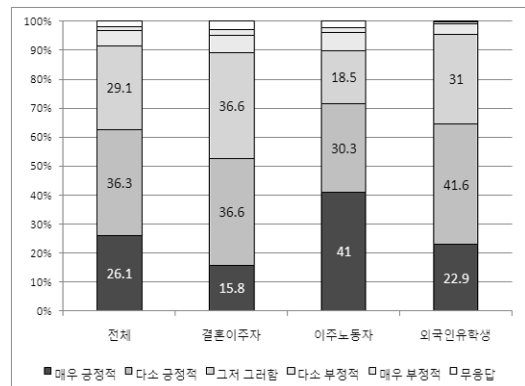


그림 10. 출신지에서 국제이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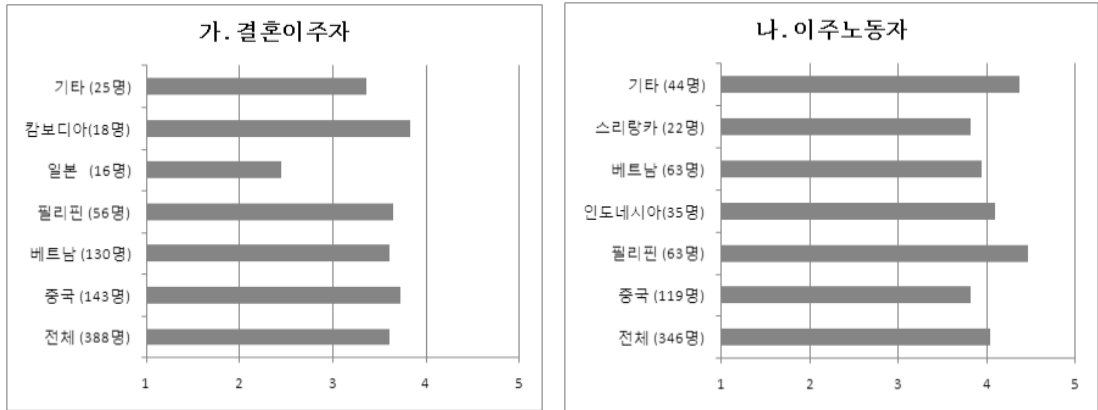


그림 11. 국적별 출신지에서 국제이주에 대한 인식(5점 척도 값)

민들의 인식은 이주자 당사자의 이주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결혼이주자들은 ‘매우 긍정적’ 15.8%, ‘다소 긍정적’이 36.6%로 국제결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해외 취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 41.0%, ‘다소 긍정적’ 30.3%로 해외 취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외국인 유학생 역시 ‘매우 긍정적’ 22.9%, ‘다소 긍정적’ 41.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볼 때 국제결혼, 해외 취업, 해외 유학에 대해 대부분의 출신 지역들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아래 사례 4와 같이 특히 한국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하기도 한다.

[사례 4] [지역주민들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한국유학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 평소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기에 한국 유학은 매우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들어

서 한번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었다 (외국인 유학생, 베트남 출신, 남성, 미혼으로 2003년 입국, D-2(유학) 비자).

이와 같이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은 출신 지역 주민들이 국제이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출신국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그림 11). 예로 결혼이주자의 경우 국적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본인 결혼이주자는 ‘다소 부정적’ 50.0%, ‘매우 부정적’ 12.5%로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본출신 결혼이주자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주 동기가 경제적 요인보다는 종교적인 요인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정기선, 2008 등 참조).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국적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필리핀의 경우 63.5%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비교할 경우,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5. 이주 목적국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

국제이주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거시적 배경은 세계 전반적 상황과 더불어 한편으로 출신 국가 및 지역, 다른 한편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목적 국가의 여러 상황을 포함할 것이다. 특히 거시적 배경에 관한 국제 이주이론에서 국가 간 불균등발전이나 또는 이주 유출국의 배출요인과 더불어 유입국의 흡인요인을 강조하는 배출흡인이론에 의하면, 중간 장애요인(또는 간섭기회)이 없을 경우 유출국과 유입국간의 격차가 클수록 국제이주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의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특성들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알았음’과 ‘많이 알았음’이 각각 2.4%, 15.8%였고, ‘조금 알았음’과 ‘전혀 몰랐음’이 각각 38.1%, 9.2%로 부정적 응답자가 훨씬 더 많았고, 5점 척도 값으로 2.64였다(그림

12). 특히 결혼이주자는 5점 척도값이 2.32로 가장 낮았고, 의외로 전문직 이주자들도 2.63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이주노동자 2.81, 외국인유학생 2.8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주 전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특히 결혼이주자가 인지 수준이 낮았음은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 선택이 우선이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전문직이주자의 경우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우선 고려의 대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낮선 곳으로 이주를 계획한 사람에게 이주할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하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가에 따라 이주 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최송식 외, 2008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국내 외국인 이주자 전반, 특히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이들이 이주 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임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관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5점 척도 값으로 광주지역이 2.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전남, 경기, 경북, 대구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 이주자들이 이주 전 한국에 대해 가장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적별 인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의외의 결과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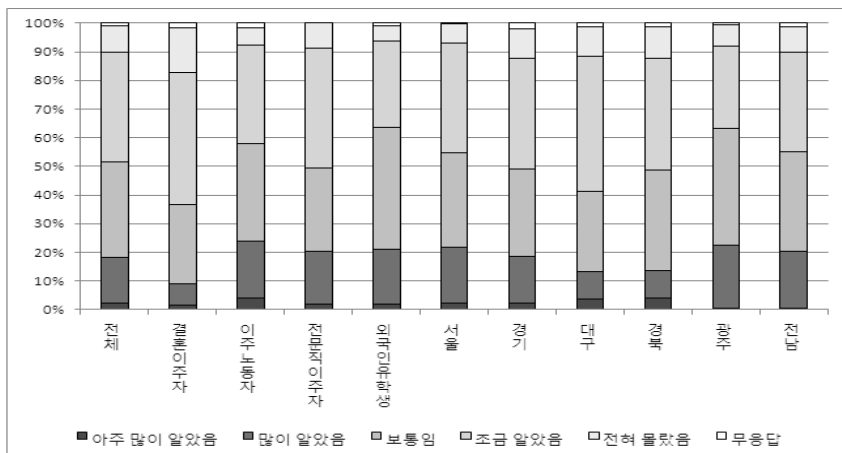


그림 12.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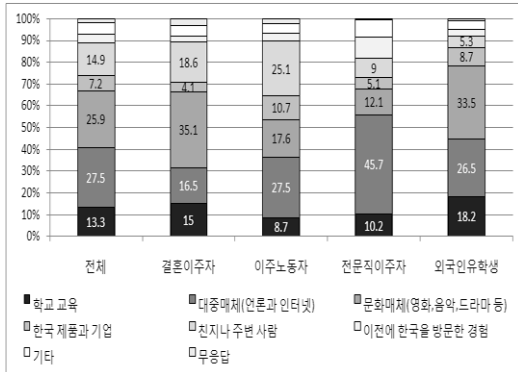


그림 13.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 방식

타난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5점 척도 값으로 일본이 3.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 3.10, 중국 2.70의 순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응답결과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동일 문화권으로 국가 간의 빈번한 교류로 인해 타 국가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영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의 선진국은 한국에 대해 기존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인지 정도와 더불어 인지 방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언론과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인지가 2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화·음악·드라마 등과 같은 문화매체가 25.9%를 차지한 반면, 학교 교육은 13.3%였고, 친지나 주변사람이 14.9%, 한국 제품과 기업은 7.2% 정도였다(그림 13). 이러한 인지 수단이나 방식은 이주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영화·음악·드라마와 같은 문화매체를 통해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언론과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알았다는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이러한 응답 결과의 차이는 보편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드라마를 선호하며, 결혼이주자의 경우 성비 구성에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류스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상당 정도 나타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 사례 5에서 확인된다.⁴⁾

[사례 5] 중국 광둥성에서는 한국 문화가 유행하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이다. 한국 유명 가수, 특히 예로 ‘동방신기’의 노래가 많이 유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 보다는 현대 문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한국의 문화가 익숙하다 (외국인 유학생, 중국 출신 여성, 미혼, 2008년 입국, D-2(유학) 비자).

그러나 태국이나 필리핀, 일본 이주여성의 경우는 한류의 영향보다는 종교 활동을 통해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권유받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가 주로 비공식적인 수단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역으로 학교 교육이나 이주 전 한국 정부에 의한 공식적이고 직접적 교육이 부족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 전 한국의 국가적 상황에 관한 인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17.3%, ‘그렇다’ 53.0%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70%를 넘었고, 5점 척도 값으로 3.83을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이주노동자가 5점 척도 값 4.11을 나타내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결혼이주자 3.81, 외국인 유학생, 3.71이었고, 전문직 이주자는 3.66으로 가장 낮았다. 위에서 논의한 본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와 비교해 보면, 이주노동자가 0.72로 가장 작았고, 전문직 이주자가 1.2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점은 이주노동자의 경우 출신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발전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이주의 거시적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경제발전도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크

표 9. 한국의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인지

이주자 유형	응답 자수 (명)	경제가 발전한 나라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사회복지 높은 나라		물질문화가 앞선 나라	
		5점척도	척도차이*	5점척도	척도 차이*	5점척도	척도 차이*	5점 척도	척도 차이*	5점 척도	척도 차이*
전체	1,353	3.83	0.90	3.45	0.43	3.45	0.79	3.69	0.76	3.94	1.44
결혼이주자	393	3.81	0.76	3.43	0.41	3.43	0.80	3.82	0.78	3.91	1.34
이주노동자	346	4.11	0.72	3.83	0.44	3.78	0.67	3.99	0.67	4.02	0.97
전문직이주자	256	3.66	1.24	3.33	0.64	3.31	0.99	3.26	0.88	3.90	1.83
외국인유학생	358	3.71	1.20	3.20	0.59	3.24	0.96	3.56	1.04	3.93	1.90

주: * 본국 상황에 관한 동일 항목에서의 5점 척도 값(표 5참조)과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차이를 부정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됨.

지 않지만, 본국의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를 고려하면 결혼이주자는 이주노동자에게,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직이주자에게 더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을 보면 이주노동자 5점 척도 값이 3.83으로 가장 높고, 외국인 유학생은 3.20으로 가장 낮았다. 이 항목은 전반적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5점 척도 값이 낮은 편이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관한 결혼이주자의 인지는 5점 척도 값으로 이주노동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본국 상황과 비교해 보면 결국 이주노동자의 비슷한 인지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이주노동자가 5점 척도 값 3.78으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 유학생이 3.24로 가장 낮았다. 이 항목은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인가’에 관한 항목과 5점 척도 값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차이가 더 커다는 점에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정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인가’라는 항목에서는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도 18.8%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5점 척도 값 3.99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이주자가 3.26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에 대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가 인식하는 것과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인식 간에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또한 본국 상황과 비교해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직 이주자들보다도 그 차이를 부정하는 정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출신이 많아 본국의 사회복지수준에 비추어 한국의 복지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 결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물질문화(TV, 컴퓨터 보급 등)가 앞선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5점 척도 값이 가장 높은 3.94를 나타내어 한국의 국가적 상황에 관한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유형별로 이주노동자가 4.01로 가장 높고 전문직 이주자가 3.90으로 가장 낮아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국 상황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부정이 다른 항목들 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그 차이에 있어서 전문직이주자와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그 차이에 대한 부정의 정도가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6. 요약 및 결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지구-지방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출신 국가 및 지역 그리고 목적 국가 및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양 국가 및 지역들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과정에 반영된 거시적 배경으로서 세계적 상황과 유출이 이루어진 출신 국가 및 지역의 상황, 그리고 유입이 이루어진 목적국으로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공간의 개념과 이에 함의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이에 더하여 공간적 흐름과 공간적 차이 등이 강조될 수 있었다. 이러한 다문화공간의 관점에서 흔히 거시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시적 이주 배경에 관한 인지를 고찰함으로써, 국제 이주에 반영된 여러 거시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이주의 거시적 배경 가운데 세계적 상황에 대한 인지를 살펴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대체로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그리고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 유형별, 속성별, 거주 지역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특히 국가 간 경제발전의 차이를 크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요인이 송출국에서는 압축요인으로, 유입국에서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 보다는 남성이 주어진 세계적 상황들에 대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이주자들이 타 지역 이주자들과는 다소 상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과

경북, 전남 지역 간에도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각 유형내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적에 따라 세계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 이주의 거시적 배경으로 본국 상황에 대한 이주자들의 인지를 보면, 이주자의 유형들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본국 상황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이주자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 상황에 대한 이주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본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대한 이주자들의 인식에 있어 한편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다른 한편으로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는 본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이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전 거주 지역과 관련하여,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대도시 및 중도시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농어촌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주 전 삶의 여건이 이주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특히 베트남 여성이 농어촌에 거주했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주과정에서 흔히 논의되는 젠더 문제는 또한 지역(불균등) 문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자들의 출신 지역에서 국제 이주에 대한 주민 인식을 보면, 모든 유형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혼이주자의 경우 특히 일본 출신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이주배경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특정 종교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국적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 상황에 관한 인지와 관련하여,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 수준은 대체로 모두 낮았다. 국적별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의 이주자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 접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동일 문화권으로 타 국가에 비해 교류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국을 인지하게 된 계기 또는 수단은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영화·음악·드라마와 같은 문화매체를 통해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는데 반해,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언론과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를 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대체로 한국의 경제적 발전 수준, 좋은 직장의 정도, 정치적 안정, 복지수준, 물질문화의 수준 등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특히 그 정도가 높아서 전문직 이주자 및 외국인 유학생과는 이주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주

- 1) 미시구조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최병두·송주연(2009) 참조.
- 2) 결혼이주자의 경우, 출신 지역 주민 인지에 관한 설문 문항 작성 과정에서 한국과의 문화적 관계에 우선 초점을 두었기 때문 출신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이 빠졌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로 최송식, 장익진, 김현숙(2008)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자의 이주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 <부표 1>과 같았다.

부표 1. 결혼이주자의 이주 이유

본국 상황	빈도 (명)	비율 (%)	한국 상황	빈도 (명)	비율 (%)
본국에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17	7.5	돈을 벌기 위해서	23	10.1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5	2.2	본국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49	21.6
가족과 친척의 권유로	18	7.9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서	23	10.1
가족 부양을 위해서	34	15.0	한국(인)에 대한 호감 때문에	40	17.6

자료: 최송식·장익진·김현숙, 2008, p.235에 의해 재구성(기타 제외함, 중 복응답).

- 3) 김영란의 연구(2008, 119)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 지식은 성별, 학력별, 출신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이 가장 높고, 몽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1~3년 미만)가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본국(송출국)과 이주국(유입국)에서 의무적인 이주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4) 예로, 1999년 몽골국영방송에서 방영한 '모래시계'가 큰 인기를 끌면서 몽골에 한국 드라마 붐이 생겼고 2001년 <장미와 콩나물>, <첫사랑> 등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옷과 핸드폰 등의 액세서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행했다(김선호, 2002, 65). 베트남의 사례로 김이선 외(2006) 참조.

참고문헌

- 김선호, 2002, "동아시아의 '한류': 몽골 '한류'의 특성과 전망," *동아연구* 42, pp.59-72.
-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담론* 21 11(2), pp.103-138.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pp.81-106.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류주현, 2009,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거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pp.177-190.
- 박경환, 2009, “광주광역시 초국적 다문화주의의 지리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pp.91-108.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16-634.
- 박은경, 2009,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pp.5-37.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35-51.
- 정현주, 2007, “공간의 틈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53-68.
- 정현주, 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pp.109-121.
- 조현미, 2009, “일본인 국제결혼여성의 혼성적 정체성”, 일본어문학 45, pp.521-544.
- 최병두, 2009a,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pp.369-392.
- 최병두, 2009b,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종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35-654.
- 최병두 · 송주연, 2009, “외국인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295-318.
- 최송식 · 장익진 · 김현숙, 2008,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이용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22(4), pp.217-246.
- 최재현,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여성결혼이주와 결혼중개업체의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1-14.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Blackwell.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a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431~436.
- Kritz, M. and Zlotnik, H., 1992, Global interactions: migration systems, process and policies, in Kritz, M., Lim, L. L., and Zlotnik, H.(eds),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 Global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 pp.1-16.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pp.389-401.
- 교신: 최병두,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대구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 전화: 053-850-4155, 팩스: 053-850-4151, 이메일: bdchoi@daegu.ac.kr
- Correspondence: Byung-Doo Choi,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Naeri-ri, Jilyang-up, Gyeongsan-si, Gyeongbuk, 712-714, Korea, Tel: +82-53-850-4155, Fax: +82-53-850-4151, e-mail: bdchoi@daegu.ac.kr

최초투고일 2009년 12월 1일
 최종접수일 2010년 3월 20일

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n Ma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Byung-Doo Choi* · Gyung-Ja Lee**

Abstract : Rapidly increasing transnational migration can be seen as a typical process which has proceeded under macro-contexts of socio-spatial characters of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y and their relationships, shaped with global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gloc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on the global level. In order to consider ma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space and some key elements implied in it, that is, place, territory, network, scale (suggested by Jessop *et al.*) and spatial flow and difference. As results of questionnaire analysis of 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f macro-contexts, this paper suggests some findings: that is, a high level of recognition of all types of foreign immigrants on global changes, the most negative recognition of migrant workers among 4 types of foreign immigrants o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their origin country, a positive recognition of people in all regions of their origin (except few countries such as Japan)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a low level of their recognition in all types on S. Korea's characters as their destination country.

Keywords : foreign immigrants, ma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multicultural space, characters of original country and region, recognition of S. Korea as the destination country.

*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 part-time lecturer, Daegu University, 036116lkj@hanmail.net